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46
----------	------

발의연월일 : 2025. 1. 20.

발 의 자 : 강경숙 · 김준형 · 정춘생
김문수 · 김준혁 · 박은정
황운하 · 문정복 · 신장식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질병의 유무”를 “질병의 유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誤用)·남용(濫用) 유무”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약물의 오용·남용 관련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약물 오용·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u>질병의 유무</u>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3. (생략)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 <u>질병의 유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誤用)·남용(濫用) 유무</u> ----- ----- -----.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약물의 오용·남용 관련 교육</u> 2. <u>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u>

<p>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u>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u>제1항 및 제2항의 조치</u>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p><u>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u></p> <p><u>4. 그 밖에 약물 오용·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p> <p>④ ----- --<u>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u> ----- -----.</p> <p>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p>
---	---